

Bicol for Christ

선교편지

2022

3월

# 비콜을 주께로

*You can be a planter of hope in Bicol*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수 십만명이라는 안타까운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선교지 보다 더한 상황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속히 집단면역이 이루어져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영육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선교소식을 드립니다.

##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필리핀은 지난 2 년동안 전면 봉쇄와 국지적 통제로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통제속에서 사회 경제 활동이 제한 되어 가난한 서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저희 비콜을 주께로 교회는 한국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긴급 재난 물품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여러차례 나누며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저희사는 지역(읍 단위)에서도 확진자가 수 백명이 되었고, 비콜을 주께로 성도들도 감염자가 여러명이 있었습니다. 교회 청년이 확진된줄 모르고 함께 제자훈련하고 밥을 같이 먹었다가 저희 부부도 감염되어 약간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역 초기 마닐라 빈민촌 사역을 하면서 폐결핵을 앓아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에 감염되 긴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저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방역레벨이 완화되며 이제 교회는 70%까지 모일수 있게 되었고, 조만간 자유롭게 될것 같습니다. 그 동안 방역조치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어린이 사역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가능한 성도 대부분 사역에 임하고 있어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란 기도가 간절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 삶의 여정

그동안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며 치른 장례보다 지난 몇개월 동안 더 많은 장례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사망하는경우와,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보니 사소한 병이 곧 중병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결국 죽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비콜을 주께로 교회 개척 때부터 함께 하였던 저의 귀한 동역자인 홀리(Jurly)형제의 아내가 갑자기 심장에 통증을느껴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은 정확한 원인도 모른채 소천한 경우가 있어 너무 안타까웠고 한동안 답답한 마음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중에 감사한 것은 2월 중순 들어 확진자가 급감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3월 1일 방역 레벨이 1 단계로 조정이 되어, 약 3년 만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밖에 나올수 있는 거의 일상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이 상황 이 너무 반가우면서도 얼마나 지속될까 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저희는 매일 주님과 동행을 추구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자의 발이 어찌그리 아름다운지...**

"나보이" 뜻이 "빨/진흑탕" 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고아 교회에서 그 곳에 가려면 오토바이로 30 분, 그리고 숨이 차도록 산길, 논길을 걸어서 40 여분을 가야하는 산골 마을로 20 여 가정이 모여삽니다. 이곳을 담당하는 사역 팀이 몇 년째 공들여 사역을 한 결과 마을주민들 과반이 넘게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들 50 여명 (90%)이 주일 학교에 참석하는 하나의 바랑가이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는 길이 조만간 시멘트 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오지 작은 마을을 위해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길이 완성되면 사역을 더 수월하게 할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울락" 산지 마을에 **동산교회** 후원으로

예배당겸 태풍때 대피소로 사용될 건물이 완공된 후 전혀 기대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산지 마을로 가는 산길이 넓게 확장 되었던 것입니다. 산아래 큰 도로에서 약 1 시간 가량 온몸이 땀으로 목욕할 정도로 힘들게 걸어가야만 했던 곳이었는데 산속에 댐이 만들어지며 자연스레 차도 다닐수 있게 길을 넓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음이 길을 만들었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할때 주님이 친히 여러가지 필요한 길을 열어 주심을 늘 상 체험하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비콜을 주께로 미션 스쿨이 드디어 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렸지만 한편으론 갑작스런 방역해제로 마음이 분주해졌는데 차분히 아이들을 맞이 할 준비를 하고, 특별히 새 학기에는 학생 수, 시설부족, 교사 충원, 재정등 모든 것이 회복되어 교육 선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래 세대를 양성해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역 해제로 모처럼 함께 BCMA 미션스쿨 13 주년 기념행사."**



**기도해 주세요.**

- \*비콜 복음화를 위해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어떤 역경에도 지속될수 있도록.
- \*전도와 구제사역, 바랑가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영육간에 강건함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위해.
- \* 2022 년 3 곳의 새 바랑가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 \*BCMA 미션 스쿨의 운영과 마련된 새 부지 위에 학교교실등 선교를 위한 재반 시설이 건축 되어 비콜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행정적 절차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 \* 부족한 사역자, 주일학교 교사들이 잘 양육되어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선교사의 성령충만한 사역과 영육간에 안전과 강건함을 위해기도해 주시길 간구 드립니다.

2022 년 3 월 16 일 비콜에서 이엽광 ,박소영 선교사 드립니다.